

“문 업쇼 ~ 문 업쇼 ~ 만복이 두리둥실 들어오네~”

광주시립창극단 30주년 공연 ‘홍보가’ 26~27일 문예회관... 창극단 최초 정기공연 ‘놀보전’ 각색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30주년 공연 ‘홍보가’가 오는 26~2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홍승 연출

“자 준비하시고, 풍물패 들어오세요.”
연출가의 신호가 끝나자 마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이 팽과리, 북, 장구, 징을 울리며 객석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 업쇼, 문 업쇼, 천하장군 문 업쇼, 지하장군 문 업쇼, 만복이 두리둥실 들어오네.” 상쇠의 대사가 대극장을 찌렁찌렁하게 울렸고 신명나는 춤판이 이어졌다.
24일 찾은 공연장에서는 올해 창단 30돌을 맞은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의 연습이 한창

송순섭, 윤진철, 김영옥 등 국악계의 거장들이 단체를 이끌었다. 지난 2017년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지낸 장흥출신 유영애(71)씨가 예술감독으로 부임했다. ‘놀보전’ ‘심정전’ ‘춘향전’ 등 전통창극과 ‘쑥대머리’ ‘심정화무’ ‘이순신’과 같은 창작 창극을 무대에 올리며 전통의 보존과 새로운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창단한 1989년 10월 광주시민회관에서 첫선을 보인 창극단의 ‘놀보전’은 이후 6회, 12회, 14회 정기 공연을 거쳤고 48회 때는 ‘홍

작품 ‘주몽’ 등 300명 가까운 오페라 공연을 연출했다. 하지만 그의 연출관의 뿌리는 ‘우리 소리’에 있다. 서울대 국악과를 다녔던 그는 오페라에 눈을 뜨게 돼 서른다섯에 이탈리아에서 연출을 공부했다. 판소리와 오페라를 접목한 ‘청’과 ‘배비장전’ 등 김씨가 만든 창극은 30편을 넘는다. ‘홍보가’는 그가 두 번째 만나는 작품이다. 그는 30여 년 전 조통달 전 단장이 이끈 전남도립국악단 ‘홍보가’ 공연을 무대에 올린 적 있다.

보이게 했다. ‘홍보가’가 ‘막혀’로 문을 여는 1막은 홍보의 이야기를 담고 2막은 놀보가 잔꾀를 부리다 벌을 받는 내용으로 채웠다. 또 세계 각지에서 날아든 제비들이 나라별 노래를 부르는 형형색색의 무대는 신선함을 더할 예정이다.

1막에 앞서 프롤로그 부분은 광주를 위한 ‘렙소디’(광사곡)로 꾸민다.

“이번 공연을 만들면서 추억이 서린 고향을 그리는데 ‘렙소디’를 읊어보면 어떻게 생각했어. ‘내 마음아, 따스한 소리로 무등산 위에 날아가 앉아라 / 혼 혼하고 다정한 바람과 향기로 온나의 고향아! / 광주천 그리고 푸른 언덕 / 광주성이 우리를 반겨주네..’를 합창하는 거죠. 서른 살을 맞은 창극단이 광주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또 다른 30년과 100년 뒤에도 잊히지 않고 전달되길 바랍니다.”

창극단의 54번째 정기 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작품은 국악인 신영희씨가 작창, 이용탁 전 국립창극단 음악감독이 작곡·지휘를 맡고 채향순(안무), 한선하(음악감독)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창극단 상임수석 단원인 장영환(놀보)씨와 박운중(홍보), 이복순(홍보처), 김정미(놀보처)씨 등이 출연한다.

만 4세 이상 관람가. S석 2만원·A석 1만원. 예매 1588-7890(티켓링크). /백희준 기자 bhj@

김홍승 연출 “해학과 한의 메시지, 100년 뒤에도 광주 시민에 전달되길”

이었다. 창극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27일 오후 3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극 ‘홍보가’ 공연을 연다. 이번 무대에서는 창극단의 최초 정기공연 창극인 ‘놀보전’을 새롭게 각색했다.

1989년 6월 광주시립창극단으로 출발한 창극단은 판소리의 성지 광주를 빛내기 위해 꾸준히 공연 활동을 펼쳐왔다. 국립창극단과 함께 공공 공연장 전속 창극단체로서 국악의 대중화에 힘써왔다. 국악인 조상현씨가 초대 단장을 맡고 성창순, 홍성덕,

보가’로 공연됐다.

이번 공연 ‘홍보가’의 연출·각색은 시립창극단의 공연 ‘의병장 고경명’ ‘안중근’으로 인연을 맺은 김홍승(71)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씨는 35년 관록의 연출가답게 연기부터 동선, 연주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히 진두지휘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장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감독을 지낸 그는 ‘오페라 연출가’로 더 알려져왔다. 그는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국립오페라단 창작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홍보가’는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공연했어. 민주화 시위가 잦은 암울한 시기에 웃고 떠드는 공연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작품이 ‘홍보가’라서 무대를 이어갈 수 있었어. ‘홍보와 놀보’ 이야기는 해학과 한의 한국적인 표현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 재미있으면서 극의 내용에 의미가 있는 작품은 그래서 귀한 거죠.”

김씨는 홍보가가 갖는 한과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놀보가 지닌 해학을 더

‘오직, 장미’

이지화 개인전, 5월1일까지 무등갤러리

서양화가 이지화 작가는 지난 2년 동안 오로지 ‘장미’만을 그렸다. 가톨릭 신자로, 기도 모임에 참여할 때 늘 장미를 접하며 새삼스레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다. 형형색색 화사한 장미 넝쿨과 화병에 담긴 장미들을 그릴 때면 그녀는 늘 행복했다.

이 작가가 25일부터 5월 1일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네번째 개인전을 연다. ‘지금, 장미로 가득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만난 자연 풍경과 어우러진 장미 넝쿨을 비롯해 여행을 다니며 마음에 담아둔 다채로운 장미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집안 식탁 위에 놓인 꽃병 안의 장미 등 일상 속에서 접하는 장미 그림도 전시된다. 화사한 빛깔의 장미는 다양한 형태의 꽃병, 고양이, 성모상 등 작가의 소품들과 함께 등장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중·고등학교 때 미술부에서 활동했던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화가의 꿈을 놓지 않았다. 15년전



‘축배’

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고 지난 201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픈 행사 25일 오후 6시30분.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미술대전, 김하슬 ‘환영-치유’ 대상

1048점 입상... 5월 17일 비엔날레관서 시상·전시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박수봉)가 주관한 제32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김하슬씨의 ‘환영-치유’가 한국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048점이 입상했다.

1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올해 공모에는 지난해보다 115점 늘어난 1854점이 출품됐으며 특히 문인화와 한국화 출품작이 대거 증가했다.

입상작은 대상 6점, 최우수상 13점, 우수상 27점, 특별상 14점, 특선 343점, 입선 645점 등으로 지난해보다 69점 늘었으며 사진·조각·공예 등 6개 분야는 대상작을 내지 못했다.

이번 출품작들은 실험성과 창의성, 독특한 기법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특별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5월17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 전시회는 5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서양화=김미영 ‘가야금의 향’ ▲서예(한문)=김대중 ‘축승포록기’ ▲수채화=김수옥 ‘기억을 걷는 시간’ ▲문인화=김금옥 ‘수세미’ ▲민화=맹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최우수상 ▲한국화=김형곤 ‘남해보리암’ ▲서예(한문)=임창섭 ‘수류입급’ ▲문인화=양순덕 ‘맑은 바람’, 최혜자 ‘우리들 마음까지’ ▲서각=송상범 ‘벗과 술’ ▲서양화=오영란 ‘The Road’ ▲디자인=조영해 ‘김지 포장 디자인’ ▲사진=성한솔 ‘RGB와 상체’ ▲민화=김희옥 ‘봄날의 향연’, 김현진 ‘요지연도’, 정순애 ‘빛



김하슬 작 ‘환영-치유’

로의 초대’ ▲조각=조유나 ‘Flow’ ▲공예=백은나 ‘술속,요정미 머무는’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